

주요개념 : 몽정, 몽정지식, 후기 학령기 남자 아동

일지역 후기 학령기 남자 아동의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

이 용 화*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몽정은 남자 아동의 2차 성장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고환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정자가 부고환에 차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액이 사출 되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 성관계를 하면 부고환에 가득 찬 정액의 사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지만, 아동기 혹은 2차 성장기 초반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므로 정액의 사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고환에 정액이 가득 차게 되는데, 주간에는 뇌 중추신경에 의해 사출이 억제 되어 정액이 나오지 않지만, 밤에는 중추신경의 억제력이 약해져 정액이 나오기 쉽게 되며, 주로 수면 중 엷드려 눕거나, 옷이 스치는 등의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정액의 사출행위이다. 사정이 일어나는 순간에 짧게 쾌감을 느끼게 되며, 이 쾌감이 중추신경에 전달되어 성행위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는 것이다. 대개 한 달에 3-4회 정도 경험하게 되며 자연스런 성장의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몽정을 경험하는 아동의 대부분은 몽정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처음 몽정을 경험했을 때의 느낌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놀라고 당황했다', '불쾌했다',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등으로 나타났고, '자랑스럽다'의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경우는 6.4%에 불과했다(Kim & Koh, 1999). 몽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몽정에 대해 흥미롭게 학습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 몽정은 물론 2차 성장기를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게 하고 있다(Kim & Koh, 1999). 최근 들어 2차 성장기가 나타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 초등학교 3-4학년 이하까지 크게 내려와 있으며, 후기 학령기 아동이 처음 몽정을 경험한 시기는 평균 11.1세경으로 후기 학령기 아동 중 몽정 경험률은 5.9%로 보고되고 있다(Oh, 2008). 그러나 성에 대한 지식은 신체적 성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Lee, 2002). Oh(2008)의 연구에서는 성지식이 중간 이하라고 하였으며, Kim(2000)의 연구에서도 성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매체의 발달과 서적들의 개발로 인해 학령기 아동들의 성 지식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과 박사과정

교신저자 이용화 : yhnur21@korea.com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지식에 관한 구체적인 영역 중 월경의 경우 남녀 후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월경과 관리법에 대한 지식 정도'를 살펴 본 결과 전체 문항을 100점 중 평균 58.92점을 나타나 전반적으로 월경에 대한 지식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Lee, 2009). 물론 학교 교육을 통해 월경 및 몽정과 그 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현재 7차 교육과정에 따라 학령기 아동을 위한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목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남녀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양성 평등한 성역할을 이해함으로써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980년대의 성교육이 신체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 현재의 성교육은 양성의 인간관계나 양성존중 등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다보니 신체변화와 그에 따른 대처 등에 대한 교육 범위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몽정 교육에 할당된 시간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1년 동안의 성교육 10시간 중 4학년이 9분, 5학년이 9분, 6학년은 13분을 배정하고 있어 성교육 내용 중 가장 적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Bae, 2002). 특히 '음란물'에 20분, '대중매체' 19분, '성폭력'에 18분을 할애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성교육을 위해 10시간을 할애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2~3시간으로 축소하여 성교육을 실시하는 상황이므로(Bae, 2002), 실제로 몽정에 할애되는 시간은 더욱 적을 것이다. 특히 남자 아동들이 경험하게 되는 몽정은 단순히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처음 발생 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되고,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죄의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몽정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령기 및 청소년기 동

안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향후 2차 성징기의 발현 연령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해 학령기 아동에게 몽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후기 학령기 남자 아동의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를 확인하여 학령기 아동을 위한 몽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후기 학령기 남자 아동의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여 학령기 아동을 위한 몽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후기 학령기 남자 아동의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 한다.
- 2) 후기 학령기 남자 아동의 몽정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 몽정 경험 유무에 따른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의 차이를 파악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후기 학령기 남자 아동의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후기 학령기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남자 아동을 표적 모집단으로 I 광역시에 거주하는

후기 학령기 남자 아동 197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식 정도의 차이는 χ^2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일반적인 사항 11문항, 몽정의 생리적인 면 9문항, 몽정의 양상 9문항, 몽정과 관련된 정서적인 면 3문항으로 총 32문항이며 각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중 택일 하도록 하였다. 사전조사를 통해 중복응답과 무응답이 많은 문항 등을 수정하고, 질문지의 순서 및 구조를 변경하였으며 간호학 교수2인과, 보건교사 1인, 간호학 박사과정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작성된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4. 자료 수집

I 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2개교를 방문하여 학교장과 보건교사, 주임교사와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각 반별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지의 취지에 동의한 남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회수된 201부 중 내용이 불충분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 197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였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는 평균을 구하고 정답률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교육유무, 몽정 경험 유무에 따른 몽정에 대한 지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는 후기 학령기 남자 아동 197명으로, 연령은 만 10세에서 12세까지였으며 평균 11.2세로 만 11세가 53.8%로 가장 많았다. 몽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은 56명이었고, 교육 경험이 없는 아동은 141명이었다. 몽정을 경험한 경우는 14명으로 7.11%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97)

Characteristics		n	%
Age	Ten	28	14.2
	Eleven	106	53.8
	Twelve	63	32.0
Education experience	Yes	56	28.4
	No	141	71.6
Wet dream experience	Yes	14	7.11
	No	183	92.9

2.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는 전체 문항을 100점으로 환산하였으며 평균14.0(SD=16.6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는 67.0점이며 가장 낮은 점수는 0점이다. 각 문항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몽정의 생리적인 면에 관한 문항에서는 “몽정은 잠을 자면서 나도 모르게 정액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44.2%)을 보였으며, “몽정을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3.6%)을 보였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몽정은 부끄러운 것이다”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34.0%)을 보였으며, “몽정을 하기 전에 야한 생각을 하게 된다”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15.7%)

을 보였다. 몽정의 양상에 관한 문항에서는 “몽정을 하면 잠에서 깨게 된다”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19.8%)을 보였으며, “몽정을 할 때 피로감이나 척추통증, 고환통증 등이 있다”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3.0%)을 보였다.

3. 몽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

몽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2>. 생리적인 면에서는 9문항 중에서 4문항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는 3문항 중 1문항에서, 몽정의

양상에서는 9문항 중 1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체 21문항 중 6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생리적인 면에서는 “몽정은 잠을 자면서 나도 모르게 정액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X²=11.16, p=.004), “음모가 생길 때 쭈 부터 몽정이 발생 한다”(X²=14.85, p=.001), “몽정을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X²=10.86, p=.004), “몽정은 자위행위와 같은 것이다”(X²=25.67,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심리적인 면에서는 “몽정은 부끄러운 것이다”(X²=15.99,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몽정의 양상에서는 “소변을 볼 때 조금씩 흘러나오는 몽정이 있을 수 있다”(X²=13.5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Knowledge of wet dream according to education experience (N=197)

Clause	Knowledge of wet dream according to education experience		
	Answer rate n(%)	X ²	p
Physio-logical aspect	Wet dream is the uncontrolled ejaculation of semen from the penis during sleep	87(44.2)	11.16 .004
	Wet dreams can also happen during the day	34(17.3)	6.32 .042
	Wet dreams take place when the ampulla is full of semen	41(20.8)	6.10 .047
	Before a boy experiences wet dreams, pubic hair grows first	18(9.1)	14.85 .001
	During wet dreams, semen comes out the same way where urine passes	28(14.2)	3.37 .185
	Wet dreams can present pregnancy	7(3.6)	10.86 .004
	Wet dreams and masturbation are the same	27(13.7)	25.67 .000
	During wet dreams, some liquid from the previous time comes out before the semen	10(5.1)	2.41 .300
	During wet dreams, the sperm that comes out counts up to 2-3 hundred million at one time	25(12.7)	10.02 .007
Emo-tional aspect	Wet dream can give one a very pleasurable feeling	49(24.9)	1.34 .511
	Wet dreams can be caused by sexual thoughts	31(15.7)	4.10 .129
	Wet dreams are embarrassing	67(34.0)	15.99 .000
Effect	Wet dreams can awake one's sleep	39(19.8)	10.66 .005
	Wet dreams happen 3 or 4 times in one month	11(5.6)	4.99 .082
	Wet dreams can cause fatigue, vertebrae pain, or testis pain	6(3.0)	4.84 .089
	Wet dream can ooze out when urinating	19(9.6)	13.51 .001
	Wet dreams leave some mark on underwear	37(18.8)	1.09 .130
	When one experiences wet dreams, urine can come out mixed with semen	21(10.7)	3.60 .165
	During wet dreams, semen color is transparent	25(12.7)	.84 .655
	During Wet dream, semen amount is over 10cc at one time	18(9.1)	2.41 .299
	Wet dreams have specific smell	18(9.1)	1.65 .439

4. 몽정 경험 유무에 따른 몽정에 대한 지식 차이

몽정 경험 유무에 따른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Table 3>. 생리적인 면에서는 9문항 중 6문항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는 3문항 중 1문항에서, 몽정의 양상에서는 9문항 중 6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체 21문항 중 12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적인 면에서는 “낮에 깨어 있을 때도 몽정이 일어날 수 있다”(X²=11.39, p=.003), “몽정은 정액 팽대부위에 정액이 가득 찼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X²=17.37, p=.000), “음모가 생길 때부터 몽정

이 발생 한다”(X²=13.94, p=.001), “몽정을 하면 임신할 수 있다”(X²=10.86, p=.004), “몽정은 자위행위와 같은 것이다”(X²=25.67,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몽정을 할 때 기분 좋은 느낌이 있을 수 있다”(X²=17.56, p=.0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양상에서는 “몽정을 하면 잠을 깨게 된다”(X²=18.00, p=.000), “몽정을 할 때 피로감이나 척추 통증, 고환 통증 등이 있다”(X²=11.483, p=.003), “소변을 볼 때 조금씩 흘러나오는 몽정이 있을 수 있다”(X²=11.82, p=.003), “몽정을 할 때 소변이 섞여 나올 수 있다”(X²=18.67, p=.000), “몽정 시 정액의 색깔은 맑은 투명색이다”(X²=13.82, p=.001), “몽정

<Table 3> Knowledge of wet dream according to wet dream experience (N=197)

Clause	Knowledge of wet dream according to wet dream experience		
	Answer rate (n)	X ²	p
Physio-logical aspect	Wet dream is the uncontrolled ejaculation of semen from the penis during sleep	87(44.2)	4.51 .105
	Wet dreams can also happen during the day	34(17.3)	11.39 .003
	Wet dreams take place when the ampulla is full of semen	41(20.8)	17.37 .000
	Before a boy experiences wet dreams, pubic hair grows first	18(9.1)	13.94 .001
	During wet dreams, semen comes out the same way where urine passes	28(14.2)	1.29 .525
	Wet dreams can present pregnancy	7(3.6)	10.86 .004
	Wet dreams and masturbation are the same	27(13.7)	25.67 .000
	During wet dreams, some liquid from the previous time comes out before the semen	10(5.1)	2.92 .232
	During wet dreams, the sperm that comes out counts up to 2-3 hundred million at one time	25(12.7)	.130 .937
Emo-tional aspect	Wet dream can give one a very pleasurable feeling	49(24.9)	17.56 .000
	Wet dreams can be caused by sexual thoughts	31(15.7)	9.30 .010
	Wet dreams are embarrassing	67(34.0)	3.80 .150
Effect	Wet dreams can awake one's sleep	39(19.8)	18.00 .000
	Wet dreams happen 3 or 4 times in one month	11(5.6)	6.43 .040
	Wet dreams can cause fatigue, vertebrae pain, or testis pain	6(3.0)	11.48 .003
	Wet dream can ooze out when urinating	19(9.6)	11.82 .003
	Wet dreams leave some mark on underwear	37(18.8)	9.90 .007
	When one experiences wet dreams, urine can come out mixed with semen	21(10.7)	18.67 .000
	During wet dreams, semen color is transparent	25(12.7)	13.82 .001
	During Wet dream, semen amount is over 10cc at one time	18(9.1)	10.19 .006
	Wet dreams have specific smell	18(9.1)	10.99 .004

시 정액은 냄새가 있다”($X^2=10.99$,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IV. 논 의

후기 학령기 아동의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14.0점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어 몽정에 대한 지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후기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항에서 정답을 한 문항도 골라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도 매우 많았다. 전체 21문항 중 19문항이 20%이하의 정답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몽정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정규 교육 과정은 몽정에 대한 교육 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Bae, 2002), 담임교사를 통한 교육은 전문성이 낮고, 보건교사를 통한 교육은 보건교사 1인의 전 학년의 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Song, Kim, & Yu). 그러므로 몽정교육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 시간 외에 몽정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몽정의 생리적인 면에서의 지식정도를 살펴보면, 몽정이 ‘수면 중 사출을 의미하는 것’과 ‘수면 중에 일어나는 것’ 등의 항목에서는 비교적 높은 정답률을 보였지만, 몽정과 임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3.6%의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여, 몽정과 임신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2009)의 연구에서도 후기 학령기 남녀 아동 40%에서 월경과 임신과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Oh(2009)는 후기 학령기 아동을 위해서 임신, 성병, 피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성교육 주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는데, 몽정과 임신과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 하는 것은

임신과 피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의 시작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서적인 면에서는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여 몽정을 경험할 경우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몽정은 부끄러운 것이다”에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응답한 경우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몽정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려면 몽정이 긍정적인 경험이 되어야 할 것이며, 긍정적인 경험이 되려면 몽정을 경험하기 이전에 몽정에 대한 적절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이 문항은 몽정을 경험한 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묻는 몽정의 태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몽정이 부끄러운 행위라고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몽정에 대한 지식에 포함시켰으며, 향후 몽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몽정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몽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의 차이에서는 생리적인 면에서는 9문항 중 4문항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는 3문항 중 1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몽정의 양상에서는 9문항 중 단 1문항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21문항 중 6문항만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몽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의 차이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Lee(2009)와 Yoon(2006)의 연구에서 월경에 있어 교육을 받는 군과 교육을 받지 않은 군에서 지식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즉, 학교 현장에서 몽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아동들에게 효과적인 정보제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같은 학년 같은 반의 아동들이 교육 경험 유무에 대해 서로 다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라 성교육의 일환으로 몽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Lee, 2003) 아동들이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실제로 활용 할 만큼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개개인이 몽정에 대한 흥미를 갖는 시기가 다르고, 몽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시기가 다름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강의 위주의 집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의 문제점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몽정이 일어나는 시기가 달라 몽정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시기가 다르고, 학습능력에 따라 수업 시간에 습득하게 되는 정보의 양이 다르며, 몽정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의 취약점이 달라 반복학습이 필요한 부분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개개인이 필요한 학습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3개의 영역 중 특히 몽정의 양상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몽정과 함께 동반되는 피로감이나 통증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정답률 및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월경통에 비해 통증이 심각하지 않아 간과되고 있는 영역으로 생각된다. 몽정 시 통증 동반에 대해 학습이 이루어진다면, 몽정을 경험하면서 느끼게 되는 통증을 다른 질환으로 오인하거나 첫 몽정 시 통증으로 인한 당황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몽정의 횟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몽정을 경험한 14명의 아동 중 13명은 한 달에 1-2회 정도 몽정을 경험하며, 1명의 아동만이 한 달에 3-4회의 몽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한 달에 3-4회 몽정을 경험한 아동은 기타 질문을 통해 본인이 너무 자주 몽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며 걱정이 된다고 하였다. 구조적 설문지의 특성상 어떤 부분에 대한 걱정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횟수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몽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 질문 중 속옷관리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몽정 후에 속옷에 자국이 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여자 아동들에게 월경 시 속옷 관리에 대하여 교육 하는 것과 같이 몽정 시의 속옷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부모님에게 속옷을 보이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감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몽정의 양이나 색깔, 냄새 등에 관한 학습을 통해 몽정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관리법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몽정에 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몽정 경험 유무에 따른 몽정에 대한 지식 차이에서는 생리적인 면 9문항 중 6문항에서, 정서적인 면 3문항 중 1문항에서, 몽정의 양상에서는 9문항 중 6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체 21문항 중 12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몽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 비교할 때 생리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는 유의한 항목의 수가 비슷하지만, 몽정의 양상에서는 유의한 항목 개수의 차이를 보인다. 몽정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서는 몽정의 양상 중 1개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몽정 유무에 따른 지식의 차이에서는 6개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로 몽정을 경험한 아동들이 몽정의 양상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기 보다는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자 아동들의 경우에서 월경군이 비월경군에 비해 월경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지 않았던 Lee (200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몽정을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 100점 만점에 평균 31.9점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14.0점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역시 매우 낮은 점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몽정을 경험하기 이전에 효과적인 정보습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몽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채 몽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몽정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견해(Kim & Koh, 1999)를 갖게 되어 올바른 성정체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몽정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더 절실히 몽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게 되지만 단체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 이외의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몽정을 경험하기 이전 단계의 준비 교육은 물론, 몽정을 경험한 이후에 발생하는 궁금증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교육보다는 아동 개인의 필요가 발생했을 때 직접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가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의 신장을 위해 ICT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초등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더불어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아동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자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몽정 교육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조연을 한 경우는 없다. 그러나 Cheng (2007)은 여자 아동들의 월경교육을 위한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을 강조하면서 여성전문간호사의 활용을 제안하였고, Matziou (2009) 등은 성교육 전담교사(sex education specialist)제도를 제안하였으며, Lee(2009)는 아동전문 간호사의 활용을 제안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몽정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몽정을 포함한 다양한 성교육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몽정교육은 단순히 몽정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몽정을 자연스러운 성장의 한 단계로 받아들이고 이 시기의 아동들이 2차 성장과

관련된 적절한 발달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시기를 건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은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Hur, 2001)고 하였으며, 미국의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동성애 등의 잘못된 성행위로 발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Kubicek, Beyer, Weiss, Iverson, & Kipke, 2009). 본 연구에서 나타는 바 후기 학령기 아동의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몽정교육프로그램이 2차 성장기의 시기와 양상이 다른 아동들의 개개인의 필요에 따른 교육이 어려우므로, 개인의 필요에 따라 학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성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재가 있는 줄 모르거나, 있어도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Bae, 2002). Jun(2002)은 일선 담임 교사들이 수업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성교육 교재에 대해 요구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수업시간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정과 그 외 교육의 장소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몽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후기 학령기 아동을 위한 몽정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 하고자 후기 학령기 남자 아동의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 남자 아동 197명을 편의추출 하였으며,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이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몽정에 대한 지식정도를 자가기입식으로 조사하였다. 자료 분

석은 SPSS WIN 15.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14.0점이고, 몽정의 생리적인 면에 관한 문항에서는 “몽정은 잠을 자면서 나도 모르게 정액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44.2%)을 보였으며, “몽정을 하면 임신할 수 있다”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3.6%)을 보였다. 몽정의 양상에 관한 문항에서는 “몽정을 하면 잠에서 깨게 된다”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19.8%)을 보였으며, “몽정을 할 때 피로감이나 척추통증, 고환통증 등이 있다”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3.0%)을 보였다. 몽정과 정서적인 면에서는 “몽정은 부끄러운 것이다”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34.0%)을 보였으며, “몽정을 하기 전에 야한 생각을 하게 된다”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15.7%)을 보였다.
2. 교육 받은 경험 유무에 따른 몽정에 대한 지식 정도에서는 생리적인 면에서는 9문항 중에서 4문항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는 3문항 중 1문항에서, 몽정의 양상에서는 9문항 중 1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체 21문항 중 6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교육 경험에 따른 차이가 적어 현재의 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몽정 유무에 따른 몽정에 대한 지식 차이에서는 생리적인 면에서는 9문항 중 6문항에서, 정서적인 면에서는 3문항 중 1문항에서, 양상에서는 9문항 중 6문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전체 21문항 중 12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받은 경험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이 많으며 이는 남자 아동들이 몽정에 대한 지식을 교육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후기 학령기 아동의 몽정에 대한 지

식 정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다. 교육 유무에 따른 지식도의 차이가 없는 것은 현재의 교육 프로그램이 몽정교육에 있어서의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없고, 몽정유무에 따른 지식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몽정을 경험한 이후 실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적절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몽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교육요구도가 있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선택하여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몽정에 관한 자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e, M. R. (2002). *A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education in sexuality in elementary schools-Centering on elementary school in the city of Seou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heng, C. Y., Yang, K., & Liou, S. R. (2007). Taiwanese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s in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s menstruation. *Nurs Health Sci*, 9(2), 127-34.
- Hur, J. K. (200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and adolescent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en's University, Seoul.
- Jun, H. Y. (2002). *A study on the condition and needs of sex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Won Kwang University, Iksan.
- Kim, J. W., & Koh, H. J. (1999). A study on the sexual attitudes and the need for sex

-
- education in prim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J Korean Society Maternal and Child Health*, 3(2), 197-208.
- Kim, S. J., Kim, S. S., Yang, S. O., Jeung, G. H., Hong, S. B., & Yoem, M. J. (2000).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6(2), 186-198.
- Kubicek, K., Beyer, W. J., Weiss, G., Iverson, E., & Kipke, M. D. (2009). In the dark: Young men's stories of sexual initiation in the absence of relevant sexual health information. *Health Educ Behav*, 2, Epub ahead of print.
- Lee, I. S. (2003). *The effect of sex edycation program on knowledge of sex and attitude on sex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 Lee, M. K. (2002). *A study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 of juveniles-focus on elementary 5th, 6th grad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 Lee, Y. H. (2009). Knowledge and Management of Menstruation in Lat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Incheon, Korea. *Nursing Science*, 21(1), 13-23.
- Lee, Y. K. (2004). *Sexknowledge and sex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ung Ji University, Seoul.
- Matziou, V., Perdikaris, P., Petsios, K., Gymnopoulou, E., Galanis, P., & Brokalaki, H. (2009). Greek students' knowledge and sources of information regarding sex education. *Int Nurs Rev*, 56(3), 354-60.
- Oh, J. A. (2008). Sexual maturity,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in late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14(3), 305-314.
- Song, K. Y., Kim, C. J., & Yu, B. Y. (2003). The development of elementary sexuality education guidelines for the university students of education. *J Students Guidance*, 28, 117-173.
- Yoon, J. H. (2006). *Menstural knowledge and attitude according to current status of menstru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ABSTRACT

Key Words : Wet dream, Knowledge of wet dream, Late elementary school boys

Knowledge of Nocturnal Emissions in Late Elementary School Boys in Incheon

Lee, Yong Hw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knowledge of nocturnal emissions, or wet dreams and to provide information for developing a wet dream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boys. **Method:** The research design was a descriptive study through questionnaires. Data was collected from May 10, 2009 to May 20, 2009. A total of 197 late elementary school boys in Incheon, Korea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5.0 program. **Resul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Knowledge of wet dreams in late elementary school boys was low; The mean of the information about

wet dreams was 14.00 on a 100 point sca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of knowledge regarding wet dreams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experience at 6 items and wet dreams experience at 12 items of total 21 items. This indicates that present education for wet dreams is not efficient and does not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when they need practical information. **Conclusion:** Self education learning program for wet dreams should be developed for late elementary school boys which includes different contents and time required for further study, evaluation and assessment.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